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전주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밀집지역 지속 점검·방역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가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시는 지난 21일 방역지원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확진자 발생 수가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후라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2단계로 재격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마스크 착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중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 이행 등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시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을 기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설, 복지시설 등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환자 발생이 1주 이상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

지역사회 탄소배출량 '0'으로 만들어 지속가능 도시 조성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 하천·녹지·교육·에너지·교통·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도시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것은 전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함이다. 먼저 오는 2035년까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한 마디로 탄소중립도시 선언은 행정과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구의 날인 22일 발표된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생태교통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등 6개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참여 실행기구 관계자, 미래세대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전환 ▲폐기물 저감 및 녹색자원 전환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지원 ▲시민 환경교육 제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생태교통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체계 혁신으로 생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생태교통 분담율을 6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전환 분야의 경우 시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곳곳에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시민 태양광 자가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녹색 빌딩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오염을 막는 스마트 그린 단지를 조성해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산업으로의 전환도 꾀한다.

특히 시는 11대 거점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율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일회용품 줄이고, 폐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지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탄소원을 흡수하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모두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환경교육과 시민 실천 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가장 앞서서 대응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답게 시가면 매년 대신 깨끗한 공기와 물만 배출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완성형 수소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친환경 수소차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현재 효자배수지와 송천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 2곳에 설치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을 실현하고, 사람과 환경, 지구를 살리겠다는 각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며, 선언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숨 쉬며 꿈꾸고 자라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2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등 5개 협력기관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케어팜)' 개장식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 개장

전주시, 5개 협력기관과 개장식 가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도울 치유농장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22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최낙송) 등 5개 협력기관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케어팜)' 개장식을 개최했다.

치유농장은 발달장애인이 농장 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장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앞 유흥 국유지를 개간해 조성됐다. 케어팜 사업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국민공모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와 공동 추진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김주성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장, 임예정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소나무 모목 기념식수를 하며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시는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참여시설 10개소를 모집해 농업·치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감자, 옥수수, 상추 등 다양한 작물 재배활동을 실시, 향후 숲 체험·목장체험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체험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독서대전 '당신의 서재, 전주' 10월 개최

'2021 전주독서대전'이 '당신의 서재, 전주'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열린다.

전주시는 도서관, 도서, 문화, 교육, 서점계 등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2021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전주 지역 각양각색의 도서관들이 시민들의 서재가 돼 이곳에서 책을 읽고 꿈과 희망, 삶의 답을 찾아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서재, 전주'로 확정됐다.

10월 8일 개막식은 올해 독서대전은 '전주독서대전 주간'이 새롭게 도입돼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지난해 독서대전은 3일 동안 열렸다. 우선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은 강연과 공

연, 학술토론, 독서체험 프로그램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열린다. 이후 나흘 동안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독서동아리 공론과 대화 ▲전주시민대학 특강 ▲독서아카데미 특강 ▲시민의 서재 전시 등 소규모 독서진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추진협의회 회의에서는 독서대전을 성공적인 책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작고 작가 영상강연 ▲전주의 길, 소리, 출판 등에 관한 '전주를 읽어드립니다' ▲고전에게 길을 묻다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공감낭독회 ▲내 마음 속의 찬란한 한 문장 ▲디지털 북 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6월 개관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개관을 앞두고 마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에 조성된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과 각종 체험용 장비 구축을 마치는 대로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상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을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 1층에는 재활용 제품인 페타이어와 페목재, 자전거버퀴 등을 활용해 카페를 조성, 2층에는 우유박스로 만든 진열대를 비치한 상태다. 또 우리 주변의 흔한 소품들을 아이콘 형태로 표현해 홍보 브랜드(BI)를 제작, 활용한 내·외부 광고물도 설치했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제58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회장 이종기 부회장 박형운



회장 홍요섭

- 총무상임이사 최창용
- 재무상임이사 최민종
- 공보상임이사 김지윤
- 인권상임이사 김석곤
- 교육상임이사 김현민
- 법제상임이사 홍민호
- 여성상임이사 국순화
- 군산상임이사 최선규
- 정읍상임이사 유택
- 익산상임이사 우관수

- 이사 강성명
- 이사 국윤호
- 이사 김학희
- 이사 남준희
- 이사 장재태
- 이사 김수태
- 이사 이연준
- 이사 임영준
- 이사 최경섭
- 이사 김성호
- 이사 장영호
- 이사 정용훈
- 이사 박성준
- 이사 박광태
- 이사 김태훈
- 이사 이삼일
- 이사 이희

- 이사 박지원
- 이사 이호석
- 이사 이장석
- 이사 박우강
- 이사 김강성
- 이사 김박용
- 이사 이병진
- 이사 이영성
- 이사 이희송
- 이사 송경우
- 이사 주주은
- 이사 김동성
- 이사 김성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도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법률구조를 통해 국민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지역격차의 해소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